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2026 년 6 월 20 일 오후 5 시 50 분,
알바노 라치알레 모원(Casa Madre) 공동체에서
아순타 로사, 마리아 돌로레스 코스타 수녀(Sr. M. Dolores Costa)님이
향년 106 세, 수도생활 74 년을 마치고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오늘 화답송의 이 후렴은, 74 년 동안 기쁘고 충실하게 봉헌생활을 살아온 돌로레스 수녀 안에서 드러난 선한 목자의 선하심을 잘 표현해 줍니다.

아순타 로사는 1919 년 11 월 26 일 리보르노(LI) 주 마르차나 알타(Marciana Alta)에서 태어나 같은 날 마르차나의 성녀 가타리나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47 년 3 월 9 일 마르차나 마리나에서 수도회에 입회하였고, 1950 년 8 월 14 일 산 피에트로 알레 아쿠에(San Pietro alle Acque, PG)에서 수련기에 들어갔습니다. 1951 년 8 월 15 일 젠차노(Genzano, RM)에서 첫 서원을 하며 ‘마리아 돌로레스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습니다. 첫 서원 후 부씨술 티리노(Bussi sul Tirino, PE)로 파견되어 가정사목에 헌신하였고, 1956 년 8 월 10 일 알바노 라치알레 모원에서 종신서원을 하였습니다.

돌로레스 수녀는 수도회를 사랑하고 가난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며, 재봉 기술과 실용적인 지혜를 모든 사도직에 아낌없이 봉헌한 자매로 기억됩니다. 다소 강직하고 솔직한 성격이었지만, 맡겨진 사명을 책임감과 관대함으로 살아가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종신서원 후에는 베빌라쿠아(Bevilacqua, VR)로 파견되었고, 1957 년에는 보르고로세(Borgorose, RI)로 옮겨 기쁨과 무상성 안에서 주로 가정사목에 헌신하였습니다. 1982 년에 알바노 라치알레 모원으로 돌아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소임을 수행하였습니다.

수녀님들은 그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체구는 연약했지만 성격은 강하고 단호했던 돌로레스 수녀는 세심한 부분까지 살필 줄 아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두드러졌습니다. 공동체 모임이나 대화 중에 자신의 의견을 자주 표현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예리한 비판 정신과 정확한 통찰을 담아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말하곤 했습니다.

특히 ‘무지개(Arcobaleno)’라고 불리던 모임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이 모임은 수녀들이 매주 모여 수공예나 문화 활동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관절염으로 많이 변형된 손과 손가락으로도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며 작은 선물을 만들어 다른 수녀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생애 마지막 몇 년, 특히 마지막 몇 달 동안 나는 주님께 대한 그녀의 헌신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기도, 침묵, 곁에 있는 이들의 손을 다정하게 쓰다듬고 입 맞추던 모습, 그리고 잊기 어려운 작은 애정의 표현들 안에서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돌로레스 수녀님. 오랜 세월로 충만해진 당신의 삶은 우리도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돌로레스 수녀의 삶과 성소, 그리고 증거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녀님은 모원을 방문하곤 했던 ‘창립자(Primo Maestro)’의 목소리를 여러 차례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은총을 간직한 수녀였습니다. 또한 그녀를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며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해 준 모원 공동체의 수녀들과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돌로레스 수녀를 성부의 자비에 맡겨 드리며,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바오로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기쁨과 무상성으로 섬길 수 있는 은총과, 더욱 적절한 사목의 길을 식별할 수 있는 용기를 전구해 주시기를 수녀님께 청합니다.

총 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2026 년 6 월 20 일, 로마

성 요한 다 마테라 아빠스 기념일